

“키 작아도 총검술 잘 할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37) 군에서 만난 관세음보살

키 작은 열등감

“남자인데 키가 작아 고민이 많았어요. 열등감도 많고, 자신도 없었지요. 그런데 군에 가서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꾸어 주었어요.”

P씨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 손해를 많이 보고 산다고 생각했다. 어른들이 “넌 몇 살이니? 아니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작아?”라고 할 때가 제일 싫었다. 전철에서 손잡이는 간신히 잡을 수 있었고 남학생들이 잘 하는 운동, 특히 농구에 끼이지 못했다. 옷이나 신발을 살 때 맞는 사이즈가 없어 아동 코너에 가야했던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스무살이 넘자 고민은 여학생이었다. 웬만한 여자들보다 작은 키이기 때문에 어느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

나 싫어 자꾸 위축되다 보니 여자친구 하나 사귀어보지 못했다.

군에 입대할 때는 정말 끔찍했다. 운동도 못하는데다가 작은 키로 남들 따라 훈련받을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아니, 평균 키 이하는 군 면제

내 마음은 작지 않다

그러던 중 총검술시간이 되었다. 교관 옆에 훈련 조교가 나왔는데 교관의 어깨 좀 밖에 되지 않게 작은 것이 아닌가. P씨의 비슷하게 작은

그런데 그 조교는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호령하며 총검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작은 키로 이 무거운 총을 어떻게 저렇게 잘 다루나 하여 놀라왔다. 자기보다 훨씬 큰 군인들을 가르치는 태도에서 어떤 위축감도 볼 수 없었다. 조교 때문에 놀란 마음에도 불구하고 P씨는 힘들어서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가 다가와서 “잘 할 수 있잖아! 왜 그

모양이야!”하고 소리치는 게 아닌가. 세상에 나보고 잘할 것 같다니.

휴식 시간에 그가 일부러 찾아왔다. 조용히 부르더니 “넌 꼭 예전 내 모습이다. 정신 차려!”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 주었다. 그도 작은 키 때문에 힘들었는데 군에 올 때 오기가 났다고 한다. 키는 모자라지만 내 정신력은 절대 누구보다 작지 않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길고 무거운 총 때문에 총검술이 가장 힘들었다.

고민 끝에 따로 자발적으로 쉬는 시간에도 혼자 연습을 했다. 주말에도 틈이 되면 조교에게 부탁했다. 남들이 이상하다고 하던 말건 개의치 않았다. 매일 죽기 살기로 연습하자 점점 익숙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남보다 훨씬 잘 하게 되었다. 가르치는 조교로까지 뽑히게 된 것이다. 주위에선 놀라서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바짝 얼어서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P씨는 눈물이 나왔다.

작은 거인이 되다

그도 마음을 바꾸어 보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 키가 작다고 내 마음까지, 의지까지 작은 건 아니다.’ 특히 총검술 시간에는 죽음을 다했다. 따로 연습도 하게 되었다. 조교가 가끔 옆에 와서 용기를 심어 주곤 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총을 들어 올리는데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마치 손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그 경험을 시작으로 군 생활을 포상까지 받아가며 무사히 마쳤어요. 그 후로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지니 직장에서 별명이 ‘작은 거인’이 되었지 뭐니까. 사랑하는 여성도 생기게 되더군요. 그레 결혼도 잘 했고요. 중학생 아들은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키가 작다는 사실에 대해서 P씨는 마음의 일력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에 따라 그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한 것이다.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조교야말로 P씨에게 너무나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싶다. 황수경(동국대 신학과 강사)

입대 훈련 중 조교의 경험담으로 용기 생겨

마음 바꾼 후 자신감 생기고 당당해진 삶

좀 해 주면 안 되나?’ 한숨을 쉬며 들어갔다. 찢찢때며 고생의 연속이었다. 키 큰 사람 한 걸음에 P씨는 두 걸음을 뛰어야 따라갈 수 있었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하고 원망과 분노에 좌절감을 느꼈다.

키였다. 저렇게 작은 사람도 가르치는 조교를 만나 해서 의아했다. P씨는 시키는 대로 하려 했지만 총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앞으로 들어 올리자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았다. 잘 안 되어서 찢찢했다.

신 영 기사판

·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양산 통도사가 11월 16일 '53선지식을 찾아서-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53일간 법사스님을 모시고 떠들썩한 화엄법석이 통도사를 수놓는다. 회향은 2008년 1월 7일. 화엄산림대법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조상 선양부도 천도재도 함께 열린다. (055)381-1288

과 함께 올리게 될 보궁기도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원하는 모든 것을 원만히 이루게 할 수 있는 기도 △세계생생 함께 모르게 지어왔던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 △스스로를 정경하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 (054)672-7579

· **해원정사 '해원 백일장'**=부산 해원정사가 사회 복지법인 해원 주최로 평소 시문학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원 백일장'을 개최한다.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해원정사 앞마당에서 펼쳐질 '해원 백일장'에는 부산광역시시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연세구청장, 국회의원상 등이 마련돼 있다. (051)868-0138

· **제1회 적멸보궁 백일기도**=1300여년의 전통을 간직한 천년고찰 봉화 축사사가 제1회 적멸보궁 백일기도를 봉행한다.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적멸보궁 백일기도는 최근 신축한 보타성전에서 하루 4분 정근 기도를 100일간 봉행할 계획이다. 무여 스님

· **해인사 고우 스님 법문**=합천 해인사가 11월 12일 1029일 천도법회의 9번째 49재일을 맞아 봉화 금봉암 선덕 고우 스님을 모시고 깨달음의 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오전 9시 고우 스님이 해인사에 속에서 번뇌와 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법문한다. (055)934-3105

· **용주사 동안겨울결제기도**=화성 용주사가 11월 24일 오전 10시 동안겨울결제기도에 임제한다. 대웅전에서 봉행될 동안겨울결제기도의 동참비는 5만원. (031)234-0040

관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4>

행동주의와 불교-2

행동주의적 상담은 학습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습(學習)이란 말 그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파블로프의 조건형성이론(1941), 도널드와 밀러의 강화이론(1950),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이론(1953),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1965) 등을 토대로 발달한 학습이론은 어디까지나 외부 조건의 영향과 그 영향을 받은 생물체의 반응인 행동에 대해서만 논할 뿐이다. 후기에 와서 인지적인 면을 가미하기도 했지만, 행동주의의 밑바탕에는 인간을 기계론적이며 결정론적으로 보는 입장이 여전히 남아 있다.

행동주의에서는 앞서 인간관에서 살펴보듯이 인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한다.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학습한 결과에 따라 행동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주의의 인간관, 즉 백지 상태와 같은 행동주의적 인간의 본성과,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 사상을 같이 놓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학습이론과 불교의 업설을 나란히 놓고 유사점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백지란 어떤 그림이나 그려질 수 있는 하얀 도화지나 마찬가지이다. 누군가가 와서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바뀌어 간다. 백지 자체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외부에서 가하는 작용대로 물들어 갈 뿐이다. 즉 외부의 자극(S)에 따라 피동적으로 반응(R)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하여 쌓인 것이 학습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행동이다. 행동주의 상담은 바로 이 행동을 다루는 상담 분야다. 즉 인간이라

는 백지에 그려진 그림(행동) 가운데 부적응적인 그림을 벗겨 내거나 덧칠을 해서 적응적인 그림(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는(학습) 것이다.

불교의 '공'은 물론 이와 다르다. 공부가 얕은 필자로서는 그 깊은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백지로 비유한다면 '코팅된 백지'가 아닐까 싶다. 코팅된 백지에도 온갖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떤 것은 그리는 단계에서 잘 물들지 않고, 어떤 것은 그려졌다. 하더라도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이 지워진다. 그런데 행동주의에서처럼 외부의 자극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설사 외부의 작용이 가

해진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지우거나 하는 것은 코팅된 백지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이다. 이런 점이 행동주의와 상반되는 면이다.

같은 백지라 하더라도 물리적·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적·능동적 존재다.

학습과 업의 개념도 겉으로는 유사한 것 같지만, 내면은 정반대다. 불교의 업이 행위, 행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다. 그러나 불교에서 쓰는 행동(行)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다.

즉 '의도적인 행동'을 뜻한다. 업의 이론이 행동주의와 비슷하게 원인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을 말하지만, 그 행위 속에 의도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행동주의에서는 존재의 주관적인 의지인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존재의 내면세계,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불교인 반면, 행동주의에서는 관찰이 안 되는 '모르는 세계'라 하여 저만치 제쳐두고 만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불교

행동주의는 의지적·능동적 존재



그림 : 문병성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륜)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10월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 큰스님께서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운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